

순천 유흥업소 퇴폐영업 극성

단속 느슨하고 종사자 관리 부실…보건안전 ‘빨간불’

순천 지역 상당수 노래방의 불법·퇴폐영업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관계 당국의 단속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보건증 발급 대상인 유흥업소 종사자에 대한 관리도 허술해 보건안전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지적이다.

노래방 등록 자율화 이후 순천 지역 노래연습장은 우후죽순 격으로 늘어가고 있으며 느슨한 단속의 손길을 틈타 이들 불법 노래방 들은 노래연습장 차원이 아닌 1종 유흥업소 행세를 버젓이 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순천시에 등록된 노래연습장은 200여개이며 도우미를 알선하는

보도방 또한 50여개로 보도방마다 평균 10명의 도우미를 두고 성업 중이다.

일부 노래방의 경우 20대~40대에 이르는 10여명의 여성 도우미까지 고용해 공공연한 불·탈법과 변태행위 마저 서슴지 않고 있고 조례등을 중심으로 한 일부 업소에서는 나체 쇼까지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례등에서 노래방을 하고 있는 최모(37)씨는 “일부 노래방의 불법·변태 영업으로 영업 준칙을 침해하지는 대다수 노래방은 파리만 날리고 있다”며 당국의 느슨한 단속을 원망했다.

10여년째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다

는 이모(50)씨도 “이들 노래방의 경 우 단속에 대비해 사전에 도우미들에게 손님과 함께 온 일행임을 교육시키고 2차 매춘행위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도우미들의 변태영업 행위가 입소문을 타면서 일부 노래방은 예약 없이는 자리가 없을 정도로 문전성시를 보이자 “하루 평균 5~7만원에서 10~20만원까지 손쉽게 돈을 벌수 있다”는 업소의 유혹에 도우미로 나서는 주부들까지 늘고 있다.

이와함께 유흥업소 종사자들의 보건증 발급 이후 관리에도 하점은 드러내고 있다.

유흥업소 종사자는 최초 보건증 발급시만 일할 곳을 명시하면 된다. 때문에 보건소는 발급 이후 유흥업소 종사자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가 없고 정기검진 시 성병 등의 질병에 양성반응이 나타날 때 파악할 수 있어 사후 약방문식 처리에 그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보건증 재검사에서 상당수 성병에 양성반응을 보이자 그때서야 해당 유흥업소를 파악하는 등 시민들의 위생 안전이 위협받는 보건행정의 단면을 보여주기도 했다.

/동부취재본부=김은경기자 ejkim@



대원사에 핀 ‘순백의 연꽃’

보성군 문덕면 천봉산 자연에 위치한 대원사를 찾은 관광객들이 경내에 핀 백련을 감상하고 있다. 대원사 티벳박물관은 법정스님이 도반과 지인들에게 남긴 볶글씨 편지와 엽서 등 30여 점을 모은 ‘법정스님 선목전’을 오는 9월 20일까지 연다. <보성군 제공>

“여니·수니야, 여수엑스포 부탁해”

마스코트 홍보 본격화

후원사·관련기관 전시



송기진 광주은행장과 임직원들이 23일 본점 로비에서 여수세계박람회 마스코트인 ‘여니·수니’ 전시를 기념하는 행사를 열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2012여수세계박람회 마스코트 ‘여니(Yeoni)·수니(Suny)’ 대형 인형이 공식 후원은행인 광주은행을 시작으로 여수시, 대전엑스포과 학공원, 전남도청, 기업은행, 현대 해상 등 후원사와 관련 기관에 전시된다.

2012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문식 홍보마케팅본부장은 “마스코트는 따뜻해질 수 있는 박람회 주제를 보다 친근감 있게 전달하는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요소”라며 “앞으로 마스코트를 활용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마케팅을 진행해 박람회 인지도와 국민들의 친밀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마스코트 인형전시는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을 기원하고 상호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다중 이용시설에 전시됨으로써 자연스럽게 마스코트를 알리고 관심을 불

려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전시될 마스코트는 높이 1.3m,

가로 1.4m 크기로 친근한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해 인형소재(봉제)를 활용하고 일반인들이 기념촬영하기에 적당한 크기로 제작됐다.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 설

문식 홍보마케팅본부장은 “마스코

트는 따뜻해질 수 있는 박람회 주제를 보다 친근감 있게 전달하는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요소”라며 “앞으로 마스코트를 활용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마케팅을 진행해 박람회 인지도와 국민들의 친밀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농업박물관 ‘에너지 체험전’ 성황

휴가철 2주간 가족단위 1만명 관람

‘찾아가는 에너지 체험전’이 여름 방학을 맞은 청소년들에게 인기를 누리면서 가족단위 관람객이 매일 1000여명 이상 몰리는 등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23일 전남도 농업박물관에 따르면 이날까지 2주동안 본관 로비에 전시된 ‘찾아가는 에너지 체험전’에 여름 방학과 휴가철을 맞은 가족단위 관람객이 1만939명이 관람했다.

이번 행사는 원자력과 각종 에너지에 대한 흥미와 재미를 느끼볼 수 있도록 각종 체험물들이 주로 전시돼 어린이들이 흥미롭고 다양한 정보를 습득하는데 도움을 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실제로 기후변화와 이산화탄소 감각에 대해 알아보고 지구온난화를 완화시키기 위한 노력과 에너지 절약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각종 에너지별 ‘이산화탄소 배출량 비교 체험’ 전시물들이 인기를 끌었다.

또 직접 전지를 만들어 풍차를 돌

릴 수 있는 ‘수소연료 전지 체험’을 비롯해 바람을 일으켜 그 힘으로 램프에 불을 켜볼 수 있는 ‘풍력발전 체험’과 태양열판에 빛을 비춰 공중에 떠 있는 우주선을 작동하게 하는 ‘태양 체험’ 등도 반응이 좋았다.

전남도 농업박물관 관계자는 “체험을 통해 에너지의 소중함과 저탄소 녹색성장의 중심 에너지가 무엇인지 알리고 원자력 수출국으로서의 자긍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이번 체험 전시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찾아가는 에너지 체험전’이 여름

방학을 맞은 청소년들에게 인기를 누

리면서 가족단위 관람객이 매일 1000

여명 이상 몰리는 등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23일 전남도 농업박물관에 따르면

이날까지 2주동안 본관 로비에 전시

된 ‘찾아가는 에너지 체험전’에 여름

방학과 휴가철을 맞은 가족단위 관람

객이 1만939명이 관람했다.

또 직접 전지를 만들어 풍차를 돌

릴 수 있는 ‘수소연료 전지 체험’을 비

롯해 바람을 일으켜 그 힘으로 램프

에 불을 켜볼 수 있는 ‘풍력발전 체험’

과 태양열판에 빛을 비춰 공중에 떠

있는 우주선을 작동하게 하는 ‘태양

체험’ 등도 반응이 좋았다.

전남 보건환경연구원 결과

전남 서남부지방에 분포된 황토에 계르마늄 등 기능성 미네랄이 다양 함유돼 활용가치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전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년여간 나주·해남·강진·영암·무안·함평 등 서남부 6개 지역의 황토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인체에 악리효과가 있는 계르마늄·칼륨·황 등 성분이 다양 함유돼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성분별로는 인체의 면역력 증강 및 항암효과를 갖는 ‘계르마늄’ 1290~1550mg/kg, 동맥경화 예방이나 당뇨 치료에 이용되는 ‘바나듐’ 2만7377~7만1998mg/kg, 관절염이나 뇌기능 활성화에 효과적인 ‘붕소’ 4741~2만 2330mg/kg, 해모글로빈 형성에 관여하는 ‘코발트’ 7239~3만 8389mg/kg 등으로 타 지역 황토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함유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남지역 황토가 미네랄 함유 성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과실 및 과채류의 맛을 좋게

하는 황성분(0.038~0.135%), 식물체 밭육과 과실의 당도를 높이는 칼륨(3.147~4.582%)은 전 지역에 고루 분포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운 전남도 보건환경연구원 폐기 물분석과장은 “전남지역에 광범위하게 분포돼 있는 황토의 유효성분을 입증한 과학적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황토를 활용하면 도민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바다 관광 선도할

‘여수 거북선’ 완공



여수의 바다 관광을 선도할 거북선형 유람선인 ‘여수 거북선’이 23일 모습을 드러냈다. <사진>

여수 거북선은 여수시가 여수시도시공사에 위탁해 지난 11월부터 건조에 들어가 10개월 만에 완공됐다.

여수시는 연회장과 회의실 등을 갖추고 있는 여수 거북선의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관련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여수시는 조례안이 의결되면 거북선 운항에 들어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이 지역 관광 인프라로 활용할 계획이다.

금당 공인중개사

임대 매매

• 대인동 4층건물 식당 사무실·월류·주막 대지121坪 308공시지가 4억원

• 대중3동 고가화장실 5평

• 금남로5길 대지503坪 152평 공시지가 4억3천 매도4억8천

• 일동 대서대주역 대지45坪 건평142평 30평 주택1개의 원룸1개 전세1억4500

• 월70000원 대로변 매도4500만원

• 담양읍 삼업지역 145평 공시지가 1억9천만원

• 보성군 대성면 대지58坪 건평 180坪 공시지가 1억9천만원

• 금남로 27길 광주은행 42평 대로변 15000원 건평 982평 공시지가 90억

• 신안읍 삼현리 310坪 (94) 공시지가 3천만 매도 424천

• 대로동 자연녹지 대지 276坪 (163평) 15억원

• 금남로 27길 10평 영업용 적립 공시지가 8400만원

• 보성군 6평 대로 대지 6평 건평 208평 건물 6층 건물 59

• 확장동 64평 대로 대지 135평 건평 173평 3층 8층 2층 4층

• 목포시 대지 412평 3층건물 공시지가 852평 매도 692평

• 금남로 47길 대로변 대지 237坪 건평 1463坪 공시지가 40억 3천 일부는 전세 5억3천 일관 매도 39억

• 대교동 27평 대지 10평 전세 7평

• 대교동 27평 대로변 10평 건평 10평 2층 10평 1층 10평

• 대교동 27평 대로변 10평 건평 10평 2층 10평 1층 10평

• 대교동 27평 대로변 10평 건평 10평 2층 10평 1층 10평

• 대교동 27평 대로변 10평 건평 10평 2층 10평 1층 10평

• 대교동 27평 대로변 10평 건평 10평 2층 10평 1층 10평

• 대교동 27평 대로변 10평 건평 10평 2층 10평 1층 10평

• 대교동 27평 대로변 10평 건평 10평 2층 10평 1층 10평

• 대교동 27평 대로변 10평 건평 10평 2층 10평 1층 10평

• 대교동 27평 대로변 10평 건평 10평 2층 10평 1층 10평

• 대교동 27평 대로변 10평 건평 10평 2층 10평 1층 10평

• 대교동 27평 대로변 10평 건평 10평 2층 10평 1층 10평

• 대교동 27평 대로변 10평 건평 10평 2층 10평 1층 10평

• 대교동 27평 대로변 10평 건평 10평 2층 10평 1층 1